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합시다!

전국의 회원여러분!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일익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건데, 사회 다른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특히 우리들이 속해있는 환경분야만큼 파란이 많았던 분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폐놀사건의 여파로 환경처 장·차관이 문책 해임되었고, 해당기업 제품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해기업관계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쾌적한 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그동안 경제성장우선주의에 늘상 밀려왔던 환경경시풍조가 맞부딪혀, 조화를 이루지못한 격동의 한해였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황이 이럴때일수록, 아니 사정이 다르다하더라도 우리들은 기업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엔 어려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기업주나 간부들의 목전의 영리추구에만 급급해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기업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은 누가 뭐라해도 그 회사에서 수년간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해온 환경관리인, 여러분들이 오염물질배출원과 처리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한 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에서 뒷받침만 잘하여 준다면 기업의 환경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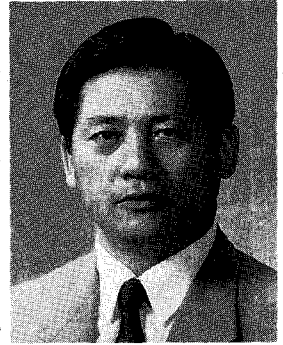
이러한 확실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일부기업들의 구태의연한 태도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많이 좋아지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회원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들은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현장경험을 십분살려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적절한 처리비용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력있는 관리자, 으뜸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최종처리장에서만 적절한 처리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일보하여 생산공정에서부터 해결점을 찾는 적극적인 관리자가 됩시다. 오염발생원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오염원을 줄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여 환경분야가 결코 소비부서만이 아님을 인식시킵시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면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성에도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도 보여줍시다.

그렇게하므로서 우리자신의 권익과 위상이 향상 될수있고, 또한 기업내에서나 사회적으로도 인



〈본 연합회 회장〉

정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본 연합회가 조직된지도 2월이면 만 6년을 맞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14개지역협의회가 결성되어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 이를테면 예산부족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회원들 대다수가 기업내에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일정제도에 진입하려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은 우리가 극복해야할 난관들이 많습니다. 양벌규정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 전담부서 미설치로 인한 승진 기회 박탈 등이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환경계는 변화무쌍했습니다.

지난해 2월 6개환경관련법규를 비롯해 최근에 폐기물관리법 등이 제·개정된바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규의 제·개정으로 수질오염·대기오염·소음진동·폐기물공정시험방법이 개편되었고, 올해부터 기존의 환경관리분야국가자격검정시험에 폐기물처리1·2급기사 및 기술사제도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환경관련법규만도 10여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로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끝으로 한말씀드릴것은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 얘기입니다. 이제는 환경인들도 제도권안에서 환경문제를 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인들을 대변해야한다는 뜻있는 환경인들에 힘입어 저 역시 구로구에서 출마했었으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를계기로 제 자신의 부족함과 함께 아직도 이 사회에선 환경문제에 대해 피상적으로, 입으로만 거론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덕한 저를 물심양면 후원해주신 전국의 회원여러분과 여러 환경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원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의 말은바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나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섭시다.

더욱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해를 만듭시다.

금년에도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2. 1.3 새해아침

이 용 운